

“ 지붕 위에 난 풀 ”

■ 이종윤 원로목사

높은 자리나 탐하고 남의 눈에 띄어 나타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서 보기에 어설피다.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고 알맞아야 어울린다. 분수를 모르고 남을 제치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가리지 않고 쏟아내면서 함부로 덤비는 모습은 지붕 위에 난 풀처럼 보기에 괴롭고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풀이라고 해서 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축을 위한 목초나 사람을 위한 식용도 있고 농사를 위한 퇴비도 있다. 그러나 지붕 위의 풀은 퇴비나 사료, 심지어 땀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고 관상에 해롭고 건물 유지에도 유해할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쓸모없는 이가 되거나 해로운 존재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자리가 있다. 머리카락은 머리 위에 붙어 있을 때 제 값이 있다. 그것이 땀 속의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제자리를 이탈하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나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 따라 제자리를 찾아 수고의 땀을 각자 흘려야 한다.

풍부한 지식과 지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정직과 자신의 그릇을 아는 사람이 그림다. 조화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 주어졌지만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상실한 때부터 역사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앉을 자리 설자리를 분별하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의 짐도 져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 한 토막이 생각난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 회의하여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했다.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면서 거절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 없다 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겠다 했다. 제자리를 벗어난 악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 양도 얼마 되지 못하며 제자리도 찾지 못한 지붕 위의 풀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기름을 짜내는 모퉁이의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2011년 7월 23일 발취-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이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든 부서 활동이 재개되고, 성경대학도 다음 주에 개강 합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 아버지주일을 맞아 특별한 양 순서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가 활기차게 회복되는 이 때에 더욱 힘써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508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합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회복되는 가정, 존엄한 노후 ”

■ 창 47:1-12

오늘은 아버지주일입니다. 젊은이들의 많은 세월보다 노년의 짧은 세월은 더 소중합니다. 신앙을 재건하고 삶의 품격을 되찾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왕 웃시아는 일평생 선정을 펼쳤고 국가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는 큰 실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대하 26:16) 만류하는 제사장 80명을 뿌리치고 강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노년에 나병환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말년에 평화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본문은 이집트로 내려간 그가 바로를 만나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평화와 명예, 행복한 노년의 삶을 가능케 한 원인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분명한 정체성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유목민을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유목민’이라고 밝힙니다. 이런 당당함은 영적 신분을 밝히는 것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처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거절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나오.’(창 48:21) 그가 끝까지 붙든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유목민이자 난민이었던 그들은 초라했을 것이며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자기 정체성을 대범하게 밝히고,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노후를 명예롭고 품격 있게 만든 요인입니다. 혼돈과 무절제한 세상 문화 속에서 맑고 선명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며 살아서 명예롭고 존엄한 노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축복하고 살아가는 영적 권위의 사람

바로가 묻습니다. ‘연세가 어찌되셨습니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목민의 족장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는 영적 권위로 상대를 압도하는 풍성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 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양보나 희생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이별했던 마가를 다시 부른 것은 젊은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품격 있고 존경스럽고 명예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삶 전체가 명예로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가정의 회복, 노후의 영광

야곱의 노후를 영광스럽게 만든 것은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가족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애굽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훗날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요셉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창 50:17)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전혀 듣고 눈물 흘리며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문은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빌 2:14) 가족들 사이에 원망스러운 일도, 시시비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삶을 가장 명예롭게 지키는 것이요 평안과 행복을 선물하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한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신앙적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는 영적 품위를 지니며 서로 화해하여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른들의 노후를 존엄하게 하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엠편 5: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8(아버지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79(30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창 47:1-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회복되는 가정, 존엄한 노후”...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199(23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8:1, 3-4 인 도 자
 찬 송 91(91) 다 함 께
 기 도 김세호 집사
 찬 송 217(362) 다 함 께
 성 경 행 21:27-4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오해와 모함의 시련” ...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384(434)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최종금 권사 II부: 정미연 권사
 성 경 행 22:1-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최 씻음의 은혜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동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 홍해작전본부 회의 / 8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 사라 전도회 월례회 / 8일(주일) 3부 예배 후 602호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새가족소개 God Bless You!

금년의 20번째 새가족입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원선예	1-10	마리아	본 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이번주 심방 일정 2-10, 2-11, 5-3, 7-3, 8-2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95명	509명	2,004명	372명	2,153명

모성

한 사회의 심장부는 가정이다. 그리고 한 가정의 심장부는 어머니의 모성이다. 그런 고로 모성이 부패하고 병들면 가정과 사회도 따라서 부패하고 병들게 된다. 모성이 건전하고 성스러울 때 그 가정과 사회는 밝고 신선하고 깨끗할 것이다.

모성은 실로 강한 것이다. 거룩하고 고마운 것이며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잘못되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것이며, 그러나 잘만 되면 온 세계를 바른 길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인 것이다.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 위로와 감사의 큰 박수를 우리의 어머니들께 보내 드리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엠편 6:2)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엠편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창 47:11-12)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